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許可 (毎月一日発行)
2018年3월1일 (수) 제760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김성제 · 편집인/ 김병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구원의 말씀, 우리들 가깝게 있다

<로마서10:8-9>



박성균 목사 (和歌山제일교회)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예수 믿는 친구와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가고, 안믿으면 지옥간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교회도 잘 몰랐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절에 가면, 웬지 모르게 신비함을 느꼈습니다. 천국, 지옥도 믿지 않던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화가난 이유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옥에 갈텐데! 하는 두려움을 부인하고 싶어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믿게된 것은 그후로 14년이 지나서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구원의 손길은 항상 가깝게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보게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롬10:8, “구원의 말씀” 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 입에,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 가서 공부해야 얻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박사가 되어야 얻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충분하다. (9,절)” 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쫓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의 말씀” 이며, 우리 가깝게 있고, 우리 입에,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근처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평소에는 잘지내다가 교회에 오시라고 하면 꼭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교회나가서 예수 믿을게” 하면서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텐데 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물건 하나를 잘못사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를들어, 텔레비전, 세탁기를 구입했을때, 만약 자신의 취향이 아닐지라도, 10년정도 사용한 후 새 것을 사면 됩니다. 다시 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의 말씀이 가깝게 있을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통해서 쉽게 알수 있습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씩씩이를 보면, 누구나 마음이 있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속에 있을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의미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가지 않아도 찾을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말씀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주신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되는 무시무시한 진노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삶에 고달픔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좌절할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시련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유혹, 욕망, 질투, 미움이 일어날때마다 십자가를 쳐다봅시다. 우리가 유혹받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은 우리 가깝게 있습니다. 성경속에 있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 옆에 가깝게 있습니다!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 ◆韓国語講座 ◆各種子どもクラス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グ)

税込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 ¥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2017년 제31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그리스도인 집회 선언

2017년 1월 26일~27일,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그리스도교 연락 협의회> (外キ協)는 제31회 전국협의회를 大阪 재일한국기독교교회관(KCC)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민족·다문화 공생의 장막을 펼치자 —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과 외국인 주민 기본법>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지역 외기련 및 외기협, 가맹 각 교파·단체 대표자 등 45명이 모여 1980년대 지문 채취 거부를 시작으로 31년간 운동의 도달점을 확인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熊本지진에 따른 교회의 대처, 개톨릭교회 大阪대교구의 외국인 주민 지원 활동, 외국인 주민 시책에 관한 자치단체와의 교섭 결과에 대하여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인권법 시점에서 본 마이너리티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차별의 현실과 그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을 배우고, 나아가서 제일 코리안을 향한 헤이트 스피치의 상황과 과제에 대하여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깊어져야 할 공생사회 실현 사명에 대하여 성서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난민·이민을 영입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도 벌써 다양한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주민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이너리티에 대한 중오를 퍼뜨리고 있는 일, 그리고 그것을 묵인해 버리는 일이 일본 사회 그 자체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근년 일본 사회에는 배외주의 분위기가 증가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일과 다양성에 대한 의의를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너리티에 대한 중오를 퍼뜨리는 헤이트 스피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리티 여성은 복합적인 차별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람의 존엄성이 상처를 받고 매일을 살아가는 힘조차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활약과 노력으로 2016년에는 마침내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법은 일본 최초의 인종차별 반대법이 됩니다만, 구체적 금지 조항이 없는 이념법에 지나지 않으며 불충분한 점이 많으며, 이 법이 실제 의미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 법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립된 해소법을 단서로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인종 차별 철폐 기본 조례 제정, 다민족·다문화 공생 도시 선언 등을 촉구해 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2020년을 향하여 <인권 대국·일본 구축> 을 목표로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이 체결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 인권 조약이 당사국의 의무화가 되어 있는 사항의 실시에 대해서는 심각한

게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을 살아가는 한사람 한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각각의 문화를 나누는 제도가 갖추어져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우리들은 계속해서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해 가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세계의 그리스도교회의 협력으로 도쿄에서 개최된 제3회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 국제회의의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2017년 4월 <마이너리티 선교 센터> 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그리스도교회의 사명으로서 사회적 마이너리티의 소리를 듣고 함께 걸으며, 인종주의와 싸우는 세계적인 에큐메니칼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 참여해 갈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과거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흐름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전쟁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실과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화해와 공생의 평화를 추구하고 세계 각 나라와 대화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大阪 우메다 개톨릭교회에서 <제31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그리스도인 집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화해와 공생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주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선교의 사명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2017년 1월 28일

제31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그리스도인 집회 참가자 일동
외국인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그리스도교 연락 협의회



마이너리티 선교센터 개소예배 안내

재일대한기독교회는 2015년 가을, 일본 및 세계교회의 협력으로 <마이너리티 선교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8개국 133명이 참석하여 차별과 증오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일본 및 세계교회와 연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해와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에 여러 교단들과 논의를 해 온 결과 금번 4월에 (A)인종주의와의 투쟁, (B)청년선교, (C)화해와 평화의 영성 개발, (D)국내외에 정보 발신 등을 축으로 하는 <마이너리티 선교 센터>를 출범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개소예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센터가 주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日時 : 2017年4月8日 (土) 午前11時 ●場所 : 日本キリスト教会館6階 会議室

2·8독립선언 제98주년 3·1독립운동의도화선이 되었던 '2·8독립선언' 재일본한국YMCA서 기념식 엄숙히 거행



김성제 총회장의 기도

이준규 주일한국대사의 기념사

2017년2월8일(수) 재일본한국YMCA(동경)에서는, 2·8독립선언 제98주년 기념식이 국내외 내빈 및 관계자 등 약 200명이 모여 엄숙히 거행되었다. 총무 김수남장로의 사회로 개최된 기념식은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김성제목사의 기도, 이준규 주일본대사의 기념사, 박유철 광복회 회장의 치사, 임삼호 민단 중앙본부 부단장의 치사와 안창호유학생 대표의 2·8독립선언 낭독, 동경한국학교 어머니 합창단과 학생들의 <2·8독립선언의 노래>, <아리랑> 등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2·8독립선언은, 1919년 2월 8일 재일본 동경 조선YMCA강당에서 개최된 <조선 유학생 학우회 총회>에 수 백명의 조선 유학생들이 모여 개최기도를 하자마자 동시에 <조선청년독립단>을 결성 하자는 긴급 동의를 있어 독립단 대표 11명의 서명과 함께 만장일치로 독립선언문이 채택되어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던 것이다. 이 사건은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보도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선언문은 서울에도 전달되어 3·1독립만세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青年會全協

청년을 위한 연수회 개최 50명의 청년이 뜻깊은 이틀을 지내다

지난 2월10일(금)~11일(토), 청년회전국협의회 주최로 제17회 <청년을 위한 연수회>가 川崎교회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2월에 가지는 이 연수회는 각 지역에서 모인 청년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한 협의회 회장이 제시하는 주제 견해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면서 공유하는 장이기도 하며 8월에 가지는 하기 수양회와 함께 전국청년회의 2대 이벤트인 것이다.

당일 한파의 영향으로 교통이 불편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석하였으며 처음으로 참석한 청년들도 있었다.



첫째 날 조영석 목사(반석교회)의 개회예배 설교에 이어 교류회, 장창수 회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천으로서 ~신앙을 풍성하게~> 라는 주제 견해를 발표한 후에 4분단으로 나누어서 느낀

전국여성교회

제18회 성서세미나 개최 서남여회와 공체, '주님을 따라서' 주제 이들간의 강연 통해 기독교자의 자세 배워

2017년2월16일~18일, 구마모토(熊本)교회에서 전국교회 여성연합회·서남지방교회여성연합회의 공동 주최로 "주님을 따라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18회 성서세미나가 열렸다.

첫날 성서강연은 일본복음루터교 켄군(健軍)교회 고이즈미 모토이(小泉基) 목사의 '하나님은 나에게 식탁을 차려 주신다' 는 제목으로 지진 직후부터 한 달 만에 걸쳐 교회에 피난한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 한 이야기를 통해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보다 <할 수 있는 한> 하자 라는 자세를 배웠다.

이틀째 성서강연은 구마모토교회 김성효 목사의 '엘피스 구마모토' (KCCJ와 일본기독교단 규슈지구 공동 운영 자원봉사 센터)의 활동, 임상종교사(臨床宗敎師)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재일 동포로써 피해 지역 사람들과 산다' 는 강연 주제대로 사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의 또 하나의 기동인 경청(傾聽) 카페 봉사에서는 네 군데로 나뉘서 가설 주택을 방문하여 한국의 떡과 차를 제공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주어졌다. 돌아오는 길에 마시마치 상황을 보고 피해 지역의 상황을 시찰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구마모토 교회의 대청소를 했다.

전국에서 총32명이 모여 이동도 많고 지리도 잘 모르는 가운데 사고없이 지낸 것에 감사를 하고 지진의 피해를 직접 본 것도 큰 배움이였다. 이 자리를 빌어 협력해 주신 김성효 목사에게 감사의 의를 표하고 많은 분들의 지원과 기도,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보고 : 이정자)

점 등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기도회는 2명이 짝이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둘째 날은 後藤亮목사의 <생명은 행복을 추구한다> 라는 주제 강연이 있었다.

바빌론 제국의 신화 에누마 엘리시와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비교하여 힘있는 사람들과 억압 받은 사람들이 그린 세계를 비교해 참가자가 느낀 점을 브레인 스토밍하면서 공유한 워킹을 통하여 한사람 한사람이 진지하게 생각 모습을 보였다.

오후에는 TPW의 안드레 레이놀목사, 켄드릭 흰처씨, 레지날드 목사, 古田大展목사, 長田富美子집사의 가스펠 워킹을 가졌다. 참가자의 대부분이 블랙 가스펠이 처음이었지만, 소프라노, 알토, 테너로 나누어 각각의 파트를 노래하여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었다. 가스펠과 안드레목사의 메시지를 통하여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도 많았다. 그리고 전 날의 주제견해와 같이 분단을 나누어 오늘 프로그램의 의의를 나누었고 각자가 2일 동안 배우고 느낀 것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폐회예배는 金健목사(川崎교회)의 설교를 듣고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다. 처음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좋은 은혜로운 연수회였다고 했다. 청년의 신앙과 교회 생활을 보다 더 충실하게 하는 청년을 위한 연수회는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이다.

(보고 : 오진아)

서부지방교회

한일교류 신도대회 개최

일본기독교단과의 선교협력을 바탕으로

2017년 1월 9일(성인의 날)에 神戸東部教会에서 <주는 하나, 믿음은 하나>라는 주제와, <주 안에서 평안>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제33회 한일 신도대회를 가졌다.



개회예배는 神戸교회 한세일목사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축

복>(렘9:23~24)의 제목으로 메시지와 성찬식, 그리고 지진 피해를 입은 熊本교회를 지원하는 헌금, 이어서 2명의 청년 축복식을 가졌다.

개회예배 후에는 130명 정도의 참가자가 12분단으로 나누어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테마(우리교회, 찬양·교회의 음악, 가정·신앙의 계승)을 선택하여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복음성가 가수 「나무엔, 본명 김성호」의 찬양과 간증을 통하여

마음을 따뜻하고 평안하게 하는 목소리로 찬양을 해주어서 주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었다.

나무엔은 <나무에는>의 의미로 「평안하게 쉼」 그리고 「함께 걷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5년부터 동북 재해지 및 일본 각지를 방문하여 마음 포근한 찬양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번 兵庫教区の 참가자는 77명, 西部地方会 참가자는 52명, 합계 129명이 참가했다. 앞으로도 일본기독교단·효고교구와 협력하여 이 대회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고 : 김철호장로)

관동지방교회

西新井教会 목사위임식 거행

재일3세인 김용소목사가 제7대 목사로

2월 26일, 관동지방교회 니시아라이교회에서는 김용소(金容昭)목사의 위임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임시대회장 김병호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명균목사(치바교회)의 기도, 김병철목사(성산그리스도교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되라>(딤후6:11-12)라는 설교로 예배를 드렸다.

위임식에는 관동지방회장 김근식목사의 사식 아래 위임서약과 선언이 있은 후, 김건목사(川崎교회)가 위임목사에게 권면을, 중경부총회장 김한범장로가 니시아라이교회 교우들에게 권면을 하고 축사는 이웃 일본기독교단 니시아라이교회 하야시 마키토(林牧人)목사와 관동지방회 부회장 정인화목사(日立교회)가 하

였다.

西新井교회 제7대 담임목사로 목회를 위임받은 김용소목사는 1970년 일본 기후현(岐阜県)에서 출생하여 大阪기독교단기대학, 神戸루터신학교 대학원 등을 졸업한 후, 2004년 4월에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선교사로 파견받았다.

가족으로는 부인 길해인(吉海仁)사모가 있다.



總會奨学生 募集案内

總會神学生として各地方会にて認定され、1年を経過した方が申請できます。
書類は總會ホームページ <http://kccj.jp.archives/2941> からダウンロードしてください。

- 募集人員：4名
- 支給金額：年額 200,000 円 / 1人
- 支給期間：1年間(受給者は、継続して新たな申請が必要)
- 書類提出先：總會事務局
- 締め切り：2017年4月30日必着
- 必要書類：①奨学金申請書 ②在学証明書
③成績証明書 ④履歴書
⑤堂会長推薦書
⑥總會神学生認定書(各地方会試取部)
⑦各地方会長承認書

宣教師・神学生研修会案内

在日大韓基督教会に加入する宣教師と、神学校を卒業し伝道師考試を受験する方のために研修会を実施します。

- 日 時：2017年7月11日(火) 14:00 ~ 21日(金) 12:00
- 場所(講義・宿泊)：在日總會神学校(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5-1)
- 履修課目：在日同胞史、KCCJ歴史、KCCJ神学及び宣教理念、憲法と規則、日本教会史と神学、エキュメニカル神学、礼式書、年金、福祉など日本生活全般、教会と現場訪問等
- 交通費・参加費：總會が負担します。
- 4月30日まで總會事務局の総幹事メールに申請してください。(kimbyungho@kccj.jp)
- 詳細は總會事務局に問い合わせください。(総幹事080-4377-3927)

